

공동체 소식



연중 제23주일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9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자비의 대희년 기도 모임'

- 일시: 9/4(주일) 오후 3:00
- 장소: 본 성당(스톤 채플)

주일학교 개학 및 첫수업

- 일시: 9/4(주일) 오전 10:00
- 장소: 본당 나자렛관

9월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9/10(토) 오전 11:30

추석합동위령미사 안내

- 일시 : 9/11(주일) 오전 11:00
- 9월기도 : 9/2(금) - 10(토), 세상을 떠난 부모와 형제, 친척, 은인들을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112쪽)를 미사 전에는 공동으로, 가정에서는 개별적으로 바칩니다.
- 미사봉헌은 미리 신청바랍니다.

9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9/17(토) 오후 5:00.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본당에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거나,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9	210	156	28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최은미 아녜스	임창주 베드로 정명숙 세라피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한춘희, 장보혜
차주	정연숙, 장남순, 박동희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8/28	75명	349불	1,550불
김태중, 김진미, 류기범, 박동희, 임수현, 이우석, 조지연, 김호원 (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 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지혜서 저자의 고백을 되새겨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봅시다.

성화해설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루카 조르다노, 1660년,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뜻에 따라 그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형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십자가를 기쁘게 실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지영현 시몬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 인간을 먼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쳐주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레몬서 말씀입니다. 9-10,12-17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마

하느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라



성경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곧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분의 뜻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사물에 이치를 마련해 놓으신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하느님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의 지혜서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혜를 깨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보잘 것 없으며, 속마음은 변덕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무리 많이 깨치고 있는 현자라도 인간인 이상 스스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깨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느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지혜 자체이시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36)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에 눈을 뜬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임을 압니다. 자기 가족,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루카 14,33도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자기 목숨 등을 “자기 소유”라고 바꾸어 표현하며 그것을 모두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하며, 그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깨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가족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며 그 소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목숨이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소유이니,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 바라시는 대로 나를, 또 나의 가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베드로와 두 기둥을 이루는 초대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거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무려 13권에 이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박해자에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열렬한 추종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 끝내 순교자로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오른팔 역할로 그의 편지를 받아썬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로마 16,21-24

사도 바오로가 대필자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오로는 거의 소경이 될 정도로 심한 안질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아주 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건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갈라 4,13-15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지만, 수십 명 인간의 손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경의 감동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대필한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필자들의 개성이 반영되었지만 하느님의 영감으로 저술되었습니다. 대필자는 충실하게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결국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티모 3,10-17

교회 역사에서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도 바로 성경 필사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수십 년씩, 혹은 평생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사실 많은 수도자와 봉사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노고의 대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 신비와 기적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몫에 최선을 다하는 테르티우스 같은 이들이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간단한 이치

이치는 간단합니다.
빈 곳은 채워지고
이미 찬 곳은 넘치고

무언가를 담아주려 해도
이미 가득하다면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빈 곳은 채워지고
찬 곳은 넘치고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33)